한국조경학회지 54(5): 117~135, 2026. 10.
J. KILA Vol. 54, No. 5, pp. 117~135, October, 2026
pISSN 1225-1755 eISSN 2288-9566
https://doi.org/10.9715/KILA.2026.54.5.117

엘리자베스 키스 회화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국 풍경의 재현과 그 의미

The Representation and Significance of Early 20th-Century Korean Landscape in the Paintings of Elizabeth Keith

김재중*,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교수

Kim, Jae-Jung*, Sung, Jong-Sang**
*Ph.D.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Desig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14, 2026
Revised: August 21, 2026 (1st)
September 7, 2026 (2nd)
Accepted: September 8, 2026
3인익명 심사필

Corresponding author :
Jong-Sang Sung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Desig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초 외국인 여성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의 회화에 재현된 한국 풍경의 표현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키스는 1920년대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수채화와 목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도시, 자연, 인물, 일상 풍경을 세심하게 기록하였고, 『Eastern Windows』(1928), 『Old Korea』(1946) 등의 저술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배경 서사를 함께 남겼다. 본 연구는 키스의 회화 29점을 대상으로 회화의 시각적 구성, 제작 및 인식 맥락, 수용 및 유통 맥락을 분석하고, 동시기 중국·일본 작품과의 보조적 사례 대조를 통해 한국 작품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관련 작품에서는 서울, 원산, 평양, 수원, 금강산 등 실제 체류와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장소가 주요하게 선택되었고, 산지와 성문·성벽·기와지붕 등의 전통 건축 요소, 인물과 생활 활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중국·일본 작품과의 보조적 사례 대조에서는 일상생활의 표현, 눈높이 시점, 상징적 장소의 선택, 청색 계열의 색채 사용 등이 한국 작품에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자연지형·전통건축·일상적 인간 활동이 하나의 장소 장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향은 한국 작품 29점의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또한 키스의 저술과 관련 자료에서는 한국의 자연과 생활문화에 대한 관찰과 미적 관심, 외부자의 문화적 시선, 일본의 식민통치와 경관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함께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녀의 한국 재현은 공감이나 타자화 가운데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복합적인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키스의 회화가 당시 한국 경관을 그대로 복원하는 기록이라기보다, 작가가 특정한 장소와 요소를 선택해 시각적 풍경으로 구성한 자료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근대기 회화를 경관의 인식과 경험, 재현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조경사적 시각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부자의 시선, 역사적 시각자료, 시각문화, 경관 인식, 근대 회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presentational strategies and meanings of Korean landscapes depicted in the paintings of Elizabeth Keith, a British female artist who worked in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During her stay in Korea in the 1920s, Keith meticulously recorded scenes of urban life, nature, people, and daily routines through various forms of media, including watercolors and woodblock prints. Her impressions and background narratives were later published in books, such as Eastern Windows(1928) and Old Korea(1946). Based on 29 of her paintings, this study examines their visual composition, the contexts of production and perception, and the contexts of reception and circulation. It also conducts a supplementary comparison with Keith's selected contemporaneous works depicting China and Japan to examine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s of her Korean works. The analysis shows that Keith frequently selected places associated with her travel and stay in Korea, including Seoul, Wonsan, Pyongyang, Suwon, and Mt. Geumgang. Mountainous topography,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gates, walls, and tiled roofs, and figures engaged in everyday activities repeatedly appear in these works. Comparison with the selected Chinese and Japanese works indicates that depictions of everyday life, eye-level viewpoints, symbolic places, and the use of blue tones were not unique to

her Korean works. The recurring combination of natural topography,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everyday human activities within a single place-based scene was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29 Korean works. Keith's writings and related records further reveal detailed observations and an aesthetic interest in Korean nature and everyday culture, while also reflecting an outsider's cultural perspective and critical awareness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landscape change. Her representations of Korea therefore cannot be reduced simply to either empathy or othering, but sh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a complex outsider's perspective shaped by place experience, cultural position, aesthetic interests, and historical condi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eith's painting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objective records for reconstructing the physical landscape of early 20th-century Korea, but as visual sources showing how particular places and landscape elements were selected and configured into pictorial landscapes. This study thus suggests the potential of modern paintings as visual materials for examining landscape perception, experience, and representation.

Keywords: Outsider's Perspective, Historical Visual Sources, Visual Culture, Landscape Perception, Modern Painting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일제강점기 한국에 대한 시각자료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며,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재현된 회화는 그 수가 더욱 제한적이다(심영옥, 2013). 그러나 이 시기 서양인이 남긴 시각적 재현물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사회가 한국을 인식하는 방식의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박암종, 2008; 심영옥, 2013; 배리듬과 김은정, 2021).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는 20세기 초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수년간 체류하며 다양한 회화와 저술을 남긴 서양 화가로, 그 시선과 기록은 미술사적, 민속학적,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간주된다.

그녀는 수채화, 목판화, 에칭(etching)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작품 속 장면에 대한 소묘적 기록과 기행문, 해설 등을 병기함으로써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서는 해석적 토대를 제공하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특히 키스의 회화는 당대 한국 사회의 일상 풍경, 인물, 건축물, 자연경관 등을 체험적 관찰에 기반하여 재현하고 있으며(심영옥, 2013), 『Old Korea』(1946)는 이러한 시각적 인상과 내면적 응답을 텍스트로 남긴 대표 사례로서 시각이미지 연구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자료이다.

조경사적 관점에서 회화와 같은 시각자료는 과거 경관의 물리적 모습을 확인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특정 시대와 주체가 경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선택·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유가현과 성종상, 2009; 이경근, 2022). 이러한 관점에서 키스의 회화는 20세기 초 한국 경관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외부자인 작가가 한국의 경관에서 어떠한 장소와 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시각적 풍경으로 구성하였는지를 읽을 수 있는 역사적 시각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키스의 한국 풍경 회화를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 화가인 키스가 20세기 초 한국의 경관에서 어떠한 장소와 경관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시점, 구도, 색채 등의 회화적 표현을 통해 어떠한 풍경으로 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화의 시각적 구성뿐 아니라 키스가 남긴 저술과 작품의 제작·유통 및 당대의 수용 양상을 함께 검토하고, 동시기 중국·일본 작품과의 보조적 사례 대조를 통해 한국 작품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점검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택과 구성의 과정에 내재된 장소 인식과 경관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근대기 회화를 경관의 인식과 재현을 읽을 수 있는 조경사적 시각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엘리자베스 키스는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예술가들 가운데 한국을 가장 집중적으로 재현한 작가로(박암종, 2008; 배리듬과 김은정, 2021),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회화와 풍부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키스의 회화를 주로 한국의 복식·풍속·인물 등 민속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활용하거나, 작가의 생애와 신판화 제작, 제국주의적 시선과 같은 미술사적·문화사적 맥락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회화에 선택된 장소와 경관요소, 이들의 시각적 구성 방식에 주목하여 키스가 한국의 경관을 어떠한 풍

경으로 인식하고 재현하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키스는 다수의 작품에서 동일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실제 장소와 상징적 배경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회화 구성을 시도하였다. 특히 동대문, 금강산, 원산 등 특정 장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산지·성문·성벽·기와지붕·일상적 인물과 같은 경관요소가 선택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회화가 실제 경관을 그대로 옮긴 결과라기보다 작가의 장소 경험과 시각적 선택이 개입된 재현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장소와 경관요소의 선택, 반복, 구성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키스가 당시 한국에서 무엇을 경관적 특징으로 인식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키스의 회화를 근대 한국의 물리적 경관을 직접적으로 복원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보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경관이 선택되고 시각적 풍경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미술사·민속학적 연구 성과를 경관의 인식과 재현이라는 조경학적 문제의식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회화와 작가의 저술, 제작 및 수용에 관한 기록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근대기 시각자료를 통해 당시의 장소 경험과 경관 인식을 해석하는 조경사 연구의 자료적·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검토

회화와 기행문 등 역사적 시각·문자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경관과 그 인식 방식을 해석하려는 연구는 조경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는 진경산수화를 통한 풍토경관 해석, 개항기 지식인의 공간 인식, 시와 회화를 통한 경관 경험의 해석 등을 다루어 왔다(유가현과 성종상, 2009; 김정화와 조경진, 2016; 이경근, 2022). 근대기 외국인의 기록을 통해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인식 및 재현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지나와 정희선(2017)은 로웰의 조선 여행기를 분석하여, 그가 조선을 기술하는 방식에 서양인 방문자의 문화적 인식과 동양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지나와 정희선(2018)은 비숍의 여행기에 나타난 지역별 주제어와 형용사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와 지역이라는 서술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시선이 공존하고 도시·촌락·자연경관에 대한 표현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구모룡(2018)은 서양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여행기에 재현된 부산을 대상으로 자연경관,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 부산과 동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검토하고, 그 재현에 문명화 담론과 제국주의적 권력관계가 작용함을 논의하였다. 이들 연구는 외국인의 기록을 실제 장소의 묘사로만 읽기보다, 기록자의 문화적 위치와 관찰 대상, 서술 방식이 결합된 재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엘리자베스 키스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는 작품 해석 중심의 접근으로, 회화를 통해 1920년대 한국의 복식, 풍속, 여성상 등 민속적 특성을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예컨대 박암종(2008)은 키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근대기 한국 이미지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고, 심영옥(2013)은 키스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 풍속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배리듬과 김은정(2021)은 키스와 자쿨레의 회화를 비교하여 1920년대 한국 복식과 생활상의 시각적 표현을 고찰하였다. 둘째는 작가의 활동과 제작 조건, 동아시아 재현의 문화적·정치적 맥락에 주목한 접근이다. 조수강(2021a;2021b)은 키스를 동시대 일본 미술 운동의 참여자이자,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회화 전략의 수행자로 평가하였다. 전동호(2020a;2020b)는 신문·잡지와 미공개 서신 등의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키스의 생애와 조선 관련 활동을 재구성하고, 그녀의 동아시아 재현을 작품의 제작·판매 및 제국주의적 문화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근대기 외국인의 기록에 나타난 한국의 장소 인식과 재현, 키스의 인물·풍속 표현, 작품의 제작 및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키스의 한국 관련 회화 29점에서 어떠한 장소와 경관요소가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이들이 시점·구도·색채 등의 시각적 방식을 통해 화면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회화와 작가의 저술 및 제작·수용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풍경 재현의 특징과 그 장소적 의미를 해석하고, 중국·일본 작품과의 대조는 해석의 범위를 점검하는 보조 절차로 활용한다.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경향은 표 1과 같다.

2. 이론적 배경

2.1 엘리자베스 키스의 생애와 동아시아 활동

키스는 1887년 스코틀랜드 맥더프(Macduff)에서 태어났으며, 1915년, 둘째 언니 엘스펫(Elspet)과 형부 존 윌리엄 로버트슨 스코트(John William Robertson Scott)의 초청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하였다(전동호, 2020b). 한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인 3월 28일에 처음 방문하였고, 서울, 평양, 원산 등지를 여행하며 본격적인 그림 작업을 이

표 1.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자(연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근대기 외국인의 장소 인식과 재현	이지나, 정희선 (2017)	P. 로웰(P. Lowell)의 여행기에 나타난 개화기 조선에 대한 시선과 표상: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중심으로	• 로웰의 여행기를 통해 외부자의 문화적 인식과 동양에 대한 기대가 조선의 장소 표상에 반영되는 방식을 분석
	이지나, 정희선 (2018)	I. B. Bishop의 19세기 말 조선 여행기 속 재현양상과 분석연구: 주제어와 형용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지역별 주제어와 형용사의 관계를 통해 비숍의 장소 인식과 도시 · 촌락 · 자연경관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분석
	구모룡 (2018)	접촉지대 부산을 향한 제국의 시선: 외국인의 여행기에 재현된 19세기 말의 부산	• 외국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부산의 자연경관 · 거주지 · 주변부 재현을 문명화 담론과 제국주의적 권력관계 속에서 해석
작품 해석	박암종 (2008)	엘리자베스 키츠의 한국 관련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그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 엘리자베스 키스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저작물을 통해 근대기 한국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 스타일과 제작 배경을 분석 • 한국 근대 디자인사 속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키스의 역할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조명하고 그 의미를 재평가
	심영옥 (2013)	엘리자베스 키스의 시각으로 본 한국인의 모습과 풍속의 특징 분석	• 1920–30년대 엘리자베스 키스가 한국을 방문하며 남긴 회화 작품을 통해 근대기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 풍속을 구체적으로 고찰 • 한국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한국에 애정을 가진 키스의 활동과 작품을 중심으로, 그녀의 작업이 가지는 미술사적 의의를 분석 •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 풍속, 당시 시대상 및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 분석
	배리듬, 김은정 (2021)	서양화가에 의해 표현된 한국의 근대 복식문화: 엘리자베스 키스와 폴 자쿨레의 작품을 중심으로	• 1920년대 한국에 머물며 한국 복식과 생활상을 그린 엘리자베스 키스와 폴 자쿨레의 작품 분석 • 키스의 13점, 자쿨레의 12점 등 복식 표현이 뚜렷한 회화작품을 선별해 분석 대상으로 설정
제작 · 활동 및 동아시아 재현	조수강 (2021a)	근대 일본 미술의 조선표상: 엘리자베스 키스의 신판화 활동을 중심으로	• 엘리자베스 키스의 다이쇼 신판화 활동을 분석하여 근대 일본 예술에서의 모더니티 전개 양상을 탐구 • 서양화 표현과 일본 전통 목판화 기법이 융합된 신판화 양식을 통해, 일본식 근대주의 형성의 특성을 고찰
	조수강 (2021b)	일본 신판화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에 착종된 제국의 시선: 일본의 신문 기사(1916–1956)를 중심으로	• 일본 및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키스의 활동과 이미지에 내재한 제국주의적 시선을 비판적으로 고찰함 • '조선을 그린 일본 신판화 화가'로서의 키스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간과한 제국 서사와 문화적 착종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표임
	전동호 (2020a)	동아시아 판매하기: 엘리자베스 키스와 조선	• 새롭게 발굴된 신문과 미공개 서신을 기반으로 엘리자베스 키스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복원 • 키스가 판화가로서 성장하게 된 배경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했음을 조명하고, 그녀의 생애와 작업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해석
	전동호 (2020b)	변방의 미술: 엘리자베스 키스의 동양 그리기	• 미공개 편지와 당대 신문 · 잡지 등 새로운 1차 사료를 통해 엘리자베스 키스의 삶과 작품세계를 사실 기반으로 재구성 • '접촉지구' 개념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맥락에서 키스의 동양 재현 방식을 비판적으로 재조명
	Claypool (2014)	Feminine orientalism or modern enchantment? Peiping and the graphic artists Bertha Lum and Elizabeth Keith, 1920s–1930s	• Keith와 Bertha Lum의 Peiping 재현을 중심으로 서구 여성 작가의 동양 재현을 고찰
	Kumojima (2018)	"The democracy of Art": Elizabeth Keith and the aesthetic of the eastern ordinary	• 여행기와 회화를 함께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일상적 삶과 제국주의적 환경 속 Keith의 재현을 고찰

어갔다(배리듬과 김은정, 2021). 판화가로서의 전환점은 1920년 5월 도쿄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열린 자선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출판업자 와타나베 쇼자부로(渡辺庄三郎)가 키스의 수채화를 보고 판화 제작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1921년 6월 도쿄에서 첫 판화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판화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전동호, 2020b). 이후 키스는 한국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하고, 도쿄에서도 한국 관련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한국에서 관찰한 풍경과 인물을 주요 작품 소재로 제작하였다(박암종, 2008; 배리듬과 김은정, 2021). 키스의 동아시아 경험은 회화뿐 아니라 저술로도 이어졌다. 언니 엘스펫은 1928년, 키스가 보낸 편지를 편집하여 첫 번째 저서이자 여행기인 『Eastern Windows』를 간행하였고, 1946년에는 두 번째 저서인 『Old Korea』를 출간하였다. 이 저서에서 본문은 엘스펫이 집필하고, 키스는 삽화와 도판 설명을 제공하였다(전동호, 2020b). 이러한 회화와 여행기 · 도판 설명은 키스가 동아시

아 각 지역을 경험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과정과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이후 작품의 제작 및 인식 맥락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2.2 엘리자베스 키스의 회화 기법: 신판화와 시각적 표현

키스의 작품은 신판화 운동(new prints movement)의 영향을 받았다. 신판화는 출판업자 와타나베 쇼자부로가 주창한 것으로, 일본 전통 목판화의 제작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화가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적 양식을 지향한다(조수강, 2021b). 와타나베는 1910년 도쿄에 자신의 판화 판매점을 설립하고, 1915년부터 서양 화가들과 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키스를 비롯한 외국인 화가들을 적극 기용함으로써, 일본 목판화의 현대적 가능성을 확장하였다(전동호, 2020b).

신판화는 화가, 판각가, 인쇄가로 이루어진 분업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가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양 판화 제작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출판업자는 화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고, 판각가는 목판을 조각하며, 인쇄가는 채색 및 인쇄를 담당한다(전동호, 2020b). 키스는 와타나베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수채화를 목판화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양 회화의 사실적 표현과 일본 전통 목판화의 제작 방식이 결합된 작품세계를 형성하였다(전동호, 2020b; 조수강, 2021b). 특히 〈달빛 아래 서울의 동대문〉은 수채화를 바탕으로 목판화로 다시 제작된 대표작이자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키스가 판화가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심영옥, 2013). 키스의 작품에는 목판화, 에칭, 수채화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었으며, 특히 목판화에서는 일본 전통 목판화의 제작·표현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원근법과 입체감 등 서양 회화의 조형적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심영옥, 2013). 키스의 회화는 서로 다른 시각문화와 제작방식이 결합된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점·구도·색채 등의 표현은 작가의 태도나 감정과 직접 연결하기보다 매체의 특성, 작가의 저술 및 제작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한다.

2.3 경관의 시각적 재현과 해석

회화와 같은 시각자료는 특정 시기의 장소와 경관을 보여주는 기록인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과 선택을 통해 구성된 재현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회화에 나타난 공간을 당시의 실제 경관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기보다는, 어떠한 장소와 요소가 선택되고 이들이 어떠한 시각적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키스의 회화를 20세기 초 한국 경관의 객관적 복원을 위한 직접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외부자인 작가가 한국의 경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선택하여 시각적으로 재현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시각자료로 바라본다. 이경근(2022)은 병산서원의 차경을 물리적 장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이의 인식과 시대적·문화적 보기 방식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뿐 아니라 그 요소들이 관찰자에게 인식되고 의미화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풍경'을 분석상 구분하여 사용한다. '경관'은 특정 장소를 구성하는 자연·건축·인간 활동 등의 요소와 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풍경'은 이러한 경관이 작가의 시선과 회화적 선택을 통해 화면에 구성된 시각적 장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구분은 경관의 인식적·문화적 측면을 배제하는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 회화가 참조하는 장소와 화면에 재현된 장면을 구별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이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회화를 통해 당시 한국의 경관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키스가 한국의 경관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이를 어떠한 풍경으로 형상화하였는가에 있다. 이러한 선택적 재현의 성격은 키스가 자신의 작품 소재에 대해 남긴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키스는 일본의 풍경과 풍속은 이미 많은 작가들에 의해 표현되어 온 반면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시골에서는 "원시적인 간소한 실생활에 풍부한 재료"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조수강, 2021b: 290). 이러한 기록은 한국이 키스에게 단순히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라 작가의 미적 관심과 판단에 따라 선택된 재현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원시적'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그녀의 시선에는 당시 서구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문화적 관점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품에 나타난 일상성이나 자연성을 곧바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공감의 표현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Rose(2022)는 이미지 자체의 구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이미지의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서 직접 확인되는 장소, 경관요소, 시점, 구도, 색채 등의 시각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키스가 남긴 저술과 작품의 제작·유통 및 당대의 수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의미를 해석한다. 여기서 '분석'은 회화에서 관찰되는 시각적 특성을 기술하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해석'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관련 기록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종합하여 작가의 장소 인식과 경관적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분한다. 이는 두 과정을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특징의 기술·분류와 맥락적 의미 추론의 근거를 구별하여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절차적 구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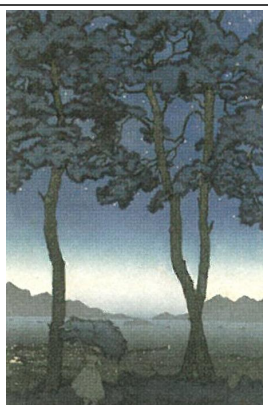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엘리자베스 키스가 한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회화 작품 중 장소와 경관요소가 확인되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풍경 자체가 주요 재현 대상인 작품뿐 아니라, 인물이 중심이면서도 배경의 자연·건축·생활공간 등이 장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된 작품을 포함하였다. 작품 목록은 그녀의 저서 『Eastern Windows』를 번역한 송영달의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Keith, 2012)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의 회화 작품은 70여 점이었다. 이 중 풍경과 장소 자체가 주요 재현 대상으로 나타나는 작품 15점을 A그룹으로, 인물이 주요 대상이지만 배경경관이 함께 표현되어 장소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작품 14점을 B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29점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2 및 그림 1, 2 참조). A·B그룹의 구분은 작품의 우열이나 회화 장르를 엄밀하게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경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른 분석상의 구분이다. A그룹에서는 장소와

표 2. 분석 대상 작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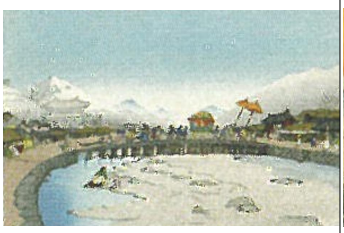
작품번호	작품명(영문)	작품명(국문)	매체	규격(cm)	제작연도
A01	Wonsan, Korea	원산	채색 목판화	24.1 × 31.2	1919
A02	East gate, Seoul(By moonlight)	달빛 아래 서울의 동대문	채색 목판화	44.9 × 31.8	1920
A03	The Nine Dragon Pool, Diamond Mountains	금강산 구룡폭포	채색 목판화	17.5 × 36.2	1921
A04	The diamond mountains, Korea, a fantasy	금강산, 전설의 환상	채색 목판화	17.6 × 36.5	1921
A05	Marriage procession, Seoul	신부 행차	채색 목판화	38.0 × 25.7	1921
A06	East gate, Seoul, sunrise	해 뜰 무렵의 동대문	채색 목판화	26.8 × 24.1	1921
A07	Morning mists, Korea	안개 낀 아침	채색 목판화	36.8 × 30.5	1922
A08	Returning from the funeral, Korea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며	채색 목판화	23.8 × 37.5	1922
A09	Riverside, Pyeng Yang, Korea	평양 강변	채색 목판화	25.5 × 38.0	1925
A10	East gate, Pyeng Yang, Korea	평양의 대동문	채색 목판화	45.0 × 31.4	1925
A11	White Buddha, Korea	백불	채색 목판화	24.9 × 37.8	1925
A12	Water gate, Suwon	수원의 수문, 화홍문	수채화	-	연도미상
A13	Schools old and new	신식 학교와 구식 학교	수채화	-	연도미상
A14	Contrasts	어느 골목길 풍경	수채화	-	연도미상
A15	Wall of Korea	한국 성벽	수채화	61.5 × 47.9	연도미상
B01	Two children	두 명의 한국 아이들	채색 목판화	17.0 × 27.0	1919
B02	The Wonsan scholar and his disciples	원산 학자와 그 제자들	채색 목판화	13.0 × 24.0	1921
B03	New year's shopping, Seoul	정월 초하루 나들이	채색 목판화	25.7 × 37.5	1921
B04	Lady with a child	아기를 업은 여인	채색 목판화	37.5 × 43.4	1934
B05	Children flying kites	연날리기 하는 아이들	수채화	36.5 × 49.5	1936
B06	Young man in court dress	궁궐 예복을 입은 청년	수채화	-	연도미상
B07	The eunuch	내시	수채화	-	연도미상
B08	The farmer	농부	수채화	-	연도미상
B09	Ugly old woman	못생긴 한국 노파	채색 목판화	-	연도미상
B10	The warrior	무인(武人)	수채화	-	연도미상
B11	Kite-flying	연날리기	수채화	-	연도미상
B12	Country scholar before a royal tomb	왕릉 앞에 선 시골 선비	수채화	28.8 × 39.0	연도미상
B13	The green cloak	초록색 장옷	수채화	29.0 × 41.0	연도미상
B14	A hamheung housewife	함흥의 어느 주부	수채화	-	연도미상


a: Wonsan, Korea(A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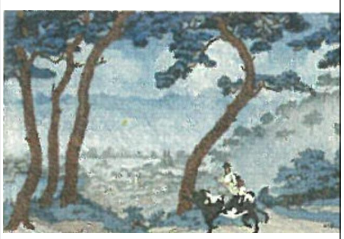

b: East Gate, Seoul(by moonlight)(A02)[2]


c: The Nine Dragon Pool, Diamond Mountains(A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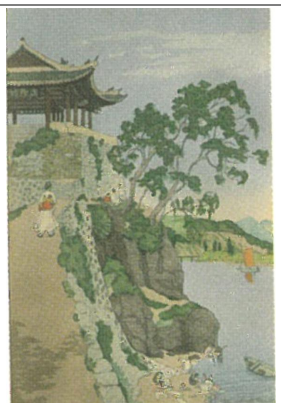

d: The Diamond Mountains, Korea, a fantasy(A04)[2]


e: Marriage procession, Seoul(A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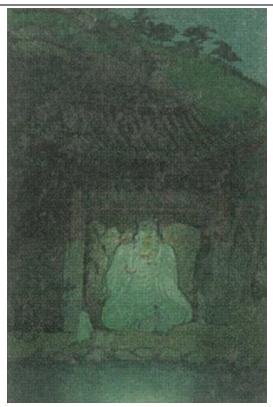

f:. East gate, Seoul, sunrise(A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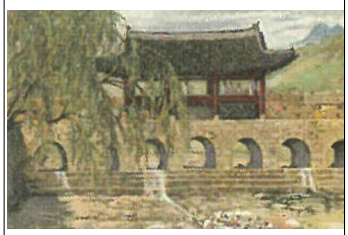

g: Morning mists, Korea(A07)[1]


h: Returning from the funeral, Korea (A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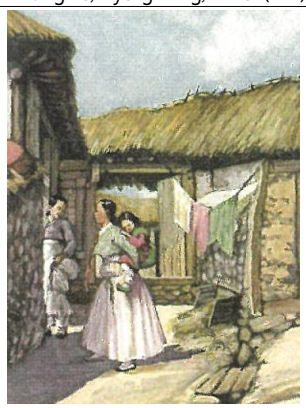

i: Riverside, Pyeng Yang, Korea(A09)[2]


j: East gate, Pyeng Yang, Korea(A10)[2]


k: White Buddha, Korea(A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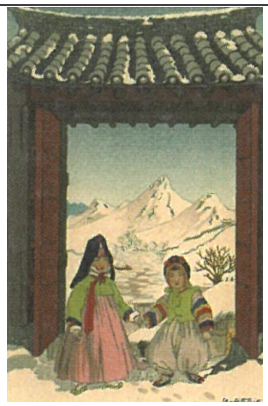

l: Water gate, Suwon(A12)[1]


m: Schools old and new(A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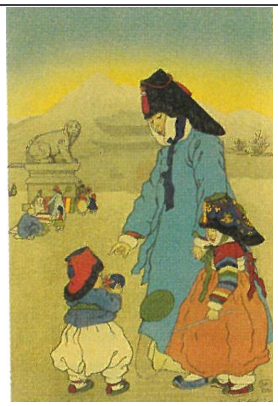

n: Contrasts(A14)[3]


o: Wall of Korea(A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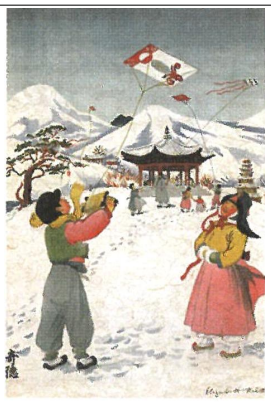
그림 1. A그룹 풍경 중심 작품 목록(n = 15)
출처: [1]Keith and Robertson Scott(2006); [2]경남도립미술관(2007); [3]Keith(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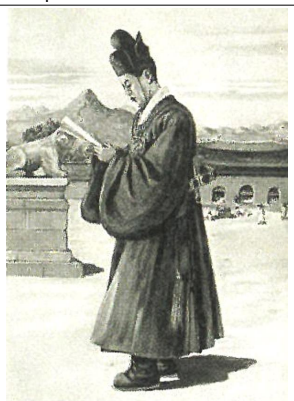

a: Two children(B01)[3]


b: The Wonsan Scholar and his disciples(B02)[1]


c: New year's shopping, Seoul(B03)[2]


d: Lady with a child(B04)[2]


e: Children flying kites(B05)[3]


f: Young man in court dress(B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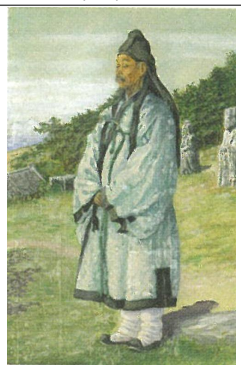

g: The Eunuch(B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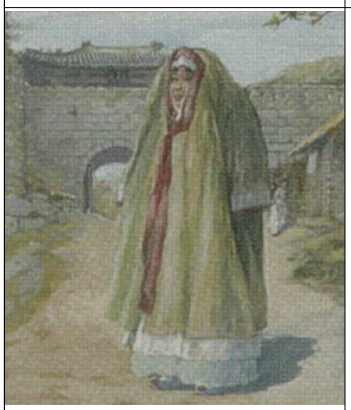

h: The farmer(B08)[3]


I: Ugly old woman(B09)[3]


j: The warrior(B10)[3]


k: Kite-flying(B11)[3]


l: Country Scholar before a royal tomb(B12)[3]


m: The green cloak(B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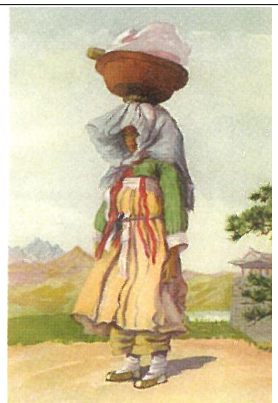

n: A Hamheung housewife(B14)[3]

그림 2. B그룹 풍경 배경 작품 목록(n = 14)
출처: [1]Keith and Robertson Scott(2006); [2]경남도립미술관(2007); [3]Keith(2012)

경관요소 및 시각적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B그룹에서는 인물과 함께 표현된 배경경관이 장소의 특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인물화의 비중이 시점이나 구도 등의 전체 분석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였다.

3.2 분석의 틀

연구는 키스의 회화를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각문화 연구자인 길리안 로즈(Gillian Rose)의 『Visual Methodologies(시각방법론)』을 분석의 틀에 활용하였다. Rose(2022)는 시각자료를 검토하는 지점을 생산(site of production), 이미지 자체(site of the image itself), 유통(site of circulation), 수용(site of audiencing)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접근은 회화의 조형적 특성뿐 아니라 그것이 제작되고 유통·수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se의 네 지점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① 회화의 시각적 구성, ② 제작 및 인식 맥락, ③ 수용 및 유통 맥락의 세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미지 자체와 생산의 지점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에 대응시키고, 유통과 수용의 지점은 세 번째 영역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전시·수집·비평 자료가 작품의 전달 과정과 평가를 함께 보여준다는 자료적 특성을 고려한 구성이다. 다만 유통과 수용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각 자료가 보여주는 전달 과정과 관람·평가를 구분하여 살펴본다(표 3 참조). 먼저 '회화의 시각적 구성'에서는 작품에서 직접 확인되는 장소와 경관요소, 시점, 구도, 색채 및 분위기를 분석한다. 세부 항목은 Rose의 구성적 해석(compositional interpretation)에서 다루는 화면 구성, 원근, 색채 및 표현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구체화하였다(Rose, 2022). 장소와 경관요소는 화면에 무엇이 재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점과 구도는 대상을 바라보는 위치와 화면 속 요소의 공간적 배치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색채와 분위기는 주요 색조와 빛, 대기조건 등이 화면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를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되는 시각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기술·분류하며, 특정한 시점이나 색채를 작가의 감정이나 장소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특히 분위기는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하는 기술이므로, 색채·빛·대기조건 등 화면에서 확인되는 근거와 함께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작 및 인식 맥락'에서는 작품의 제작연도와 매체, 키스의 여행과 체류 경험, 저술과 도판 설명 등의 기록,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앞서 확인한 시각적 특징이 어떠한 제작 조건과 작가의 장소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용 및 유통 맥락'에서는 확인 가능한 전시기록, 당대의 신문 및 비평, 작품의 수집·소장과 유통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키스의 작품이 당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유통에서는 전시·판매·수집 등을 통해 작품이 전달되고 소장되는 과정을, 수용에서는 비평과 감상 기록에 나타난 작품의 해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Rose의 시각방법론을 작품의 의미를 직접 도출하는 고정된 분석모형으로 적용하기보다, 회화의 시각적 구성과 제작·유통·수용의 맥락을 구조화하는 상위 분석틀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경관 분석항목은 구성적 해석의 논의와 연구목적에 맞게 구체화하고, 작품에서 관찰된 특징과 관련 기록을 교차하여 해석함으로써 시각적 특징에서 장소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작품의 분석과 종합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국·일본 작품과의 대조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우선, 엘리자베스 키스가 한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한국 풍경 관련 회화 29점을 대상으로 하여 앞서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회화의 시각적 구성, 제작 및 인식 맥락, 수용 및 유통 맥락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풍경이 중심이 되는 A그룹 15점과 풍경이 인물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B그룹 14점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물화의 포함 여부가

표 3. 본 연구의 분석틀

Rose(2022)의 분석지점[1)]	본 연구의 분석 영역	세부 분석 항목	주요 자료
이미지 자체	회화의 시각적 구성	장소, 경관요소, 시점, 구도, 색채·분위기	회화 작품
생산	제작 및 인식 맥락	제작 연도, 매체·제작방식, 여행·체류 경험, 작가의 저술·도판 설명, 시대적 맥락	회화, 저술, 관련 기록 및 문헌
유통 및 수용	수용 및 유통 맥락	유통: 전시·판매·수집·소장 과정 수용: 비평·감상 기록에 나타난 해석과 평가	전시 기록, 기사, 박물관 및 관련 문헌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29점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와 경관요소, 시점과 구도, 색채와 분위기의 경향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중국 작품은 〈Lama Temple Peking〉(1922), 〈Night Scene, Peking〉(1922), 〈Bridge Soochow〉(1924)의 3점을, 일본 작품은 〈Kamakura Daibutsu〉(1919), 〈Summer Reflections, Kamakura〉(1922), 〈Blue and White〉(1925)의 3점을 보조적 대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작품은 한국 작품의 주요 제작시기와 유사한 1919–1925년 사이에 제작된 채색 목판화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소와 경관요소, 시점과 구도, 색채와 분위기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이들 작품은 각 국가의 작품군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지 않고, 한국 작품 분석에서 확인한 표현이 다른 지역을 재현한 작품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사례로 활용하였다. 국가별 체류기간과 이동 경로, 작품군의 규모와 구성, 제작 조건의 차이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대조만으로 특정 경관요소나 표현방식이 한국 작품에서 더 빈번하거나 두드러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일본 작품과의 대조는 국가별 재현 특성의 차이를 입증하기보다, 한국 작품에서 관찰된 특징을 한국에만 고유한 표현이나 작가의 특별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보조 절차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화의 시각적 구성과 작가의 저술 및 관련 기록, 제작·수용의 맥락을 종합하여 한국 풍경 재현의 특징과 장소 인식 및 경관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때 중국·일본 작품과의 대조 결과는 해석의 범위를 조정하는 보완적 근거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키스의 회화를 20세기 초 한국 경관의 객관적 기록으로 간주하기보다, 작가가 경험한 장소와 경관요소를 선택하고 구성하여 시각적 풍경으로 재현한 자료로서 고찰한다.

4. 분석 결과 및 해석

4.1 한국 풍경의 재현 특성

4.1.1 회화의 시각적 구성

4.1.1.1 장소와 경관요소

엘리자베스 키스의 회화에 나타난 장소는 풍경화(A그룹)와 풍경이 함께 표현된 인물화(B그룹)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A그룹에는 서울 6점, 수원 1점, 평양 2점, 원산 2점, 금강산 2점, 장소 미상 2점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소들은 대부분 1920년대 한국에 설치되어 있던 주요 철도 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작가의 체류지였던 서울을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한 도시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실제로 키스는 『Old Korea』에서 금강산 방문 전에 원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고 원산으로 이동한 후 금강산선을 통해 금강산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수강(2021b)은 키스의 작품 배경이 당시 철도망과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A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소는 서울의 동대문이다. 총 4점(A02, 05, 06, 08)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키스가 동대문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회화의 주요 소재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준다. 키스가 선교관 인근에 머물렀으며, 해당 공간이 동대문 인근의 부인병원(현 이화여대 부속병원) 근처였음을 밝히고, 반복적인 동대문 묘사가 작가의 숙소 인근에서 자주 마주한 친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라 해석한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실제로 A02는 키스를 대표하는 목판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며, 동대문은 키스의 한국 관련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된 주요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두 점의 작품은 매우 이질적인 경관 감각을 보여준다. 해당 작품들은 구룡폭포를 중심으로 용, 호랑이, 승려, 구름 등 신화적·상징적 요소들을 삽입해 사실적인 풍경에서 벗어난 초현실적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동일한 한국 풍경 가운데서도 실제 장소의 물리적 모습을 중심으로 표현한 작품과 신화적·상징적 요소를 결합하여 장소를 재구성한 작품이 함께 나타남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금강산에 대한 작가의 경외감이나 타자화된 인식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관련 저술과 제작 맥락을 함께 검토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B그룹의 경우, 장소의 표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5점(B02, 03, 06, 08, 14)으로 원산 3점, 서울 2점이 포함되며, A그룹의 장소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배경을 합성한 작품이 3점(B01, 04, 07), 장소 유추가 불가능한 작품이 6점(B05, 09–13)으로 나타난다. 합성된 배경이 나타나는 작품에서는 실제 장소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서로 다른 경관요소가 하나의 배경 안에 조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B그룹의 배경경관이 실제 장소의 기록뿐 아니라 인물과 함께 특정한 공간적 맥락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소의 선택과 배경 구성 방식을 종합하면, 키스의 한국 관련 회화에는 실제 체류와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장소, 상징적 요소가 결합된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경관요소가 조합된 배경 등 다양한 장소 재현

방식이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장소를 작가의 일상적 경험과 낯선 장소에 대한 감각으로 이분하기보다는, 어떠한 장소와 경관요소가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화면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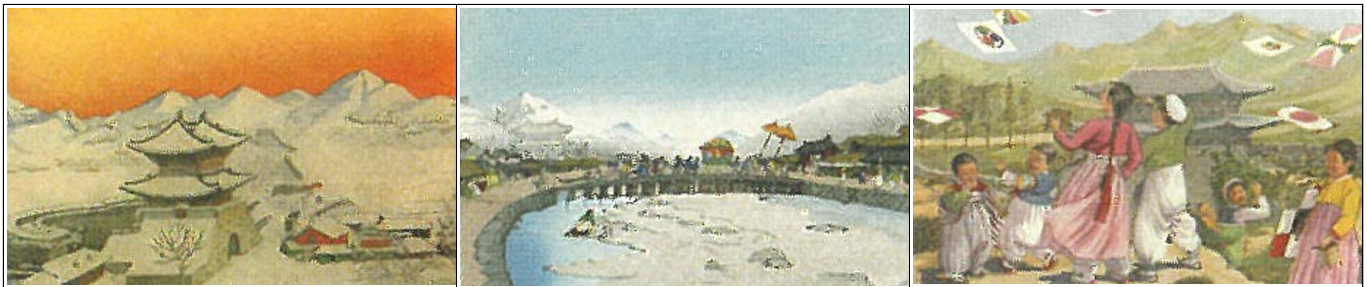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화 속 장소들의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키스가 한국의 풍경에서 '산'과 '건축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경관요소라는 점이 확인된다. 건축물 역시 성문, 성벽, 기와지붕 등 전통 건축 양식의 조형성과 재료 표현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A05, A06, B11 등의 작품에서는 산지와 건축물이 하나의 화면 안에 함께 구성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예컨대 B11에 관한 도판 설명에서는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성벽이 여러 곳에서 파손되어 끊어진 상태였다고 서술하고 있다(Keith, 2012). 이를 통해 산과 성벽이 결합된 배경경관과 이에 대한 작가의 관찰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4.1.1.2 시점과 구도

회화 작품에서의 시점은 대상을 화면에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각적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을 고시점(조감·부감), 저시점(앙감), 그리고 눈높이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A·B그룹의 작품 29점 가운데, 고시점은 3점(A01, 06, 07), 저시점은 2점(A03, 04), 나머지 24점은 모두 눈높이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A그룹 15점에서는 고시점 3점, 저시점 2점, 눈높이 시점 10점으로 나타났으며, B그룹 14점은 모두 눈높이 시점으로 나타났다. 시점별 대표 사례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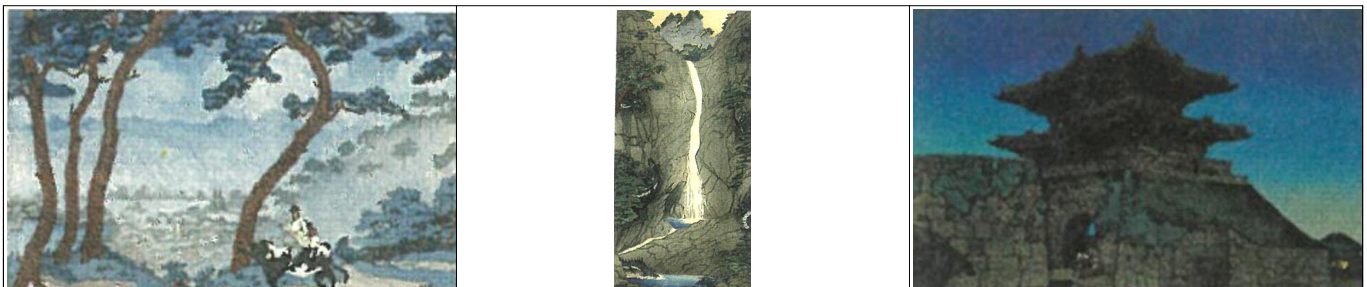
고시점으로 그려진 작품은 A01, 06, 07로, A01과 A07은 원산의 마을과 주변 경관을, A06은 서울 동대문과 주변 경관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A01은 원산의 언덕에 올라 관찰한 경관을, A07은 키스가 머물렀던 집에서 내려다본 경치를 표현한 작품이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이는 두 작품의 고시점이 실제 관찰 위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 작품의 고시점이 실제 관찰 위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에서 고시점은 넓은 범위의 경관을 하나의 화면에 담고 전경·중경·후경의 공간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거리를 둔 관찰자의 태도나 장소를 통제하려는 시선으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관찰 위치와 화면 구성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시점으로 표현된 두 작품(A03, 04)은 모두 금강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선을 위로 올려 산세를 바라보



a: A06. east gate, Seoul, sunrise[1] | b: A05. marriage procession, Seoul[1] | c: B11. kite-flying[2]

그림 3. 산과 전통 건축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작품 사례
출처: [1]Keith and Robertson Scott(2006); [2]Keith(2012)



a: 고시점-A07. morning mists, Korea[1] | b: 저시점-A03. The Nine Dragon Pool, Diamond Mountains[1] | c: 눈높이 시점-A02. east gate, Seoul(By moonlight)[2]

그림 4. 고시점·저시점·눈높이 시점의 작품 사례
출처: [1]Keith and Robertson Scott(2006); [2]경남도립미술관(2007)

는 앙감 구도가 특징이다. 두 작품에는 구룡폭포를 배경으로 용, 호랑이, 승려, 구름 등의 상징적 요소가 함께 배치되어 산세와 폭포에 신화적 요소가 결합된 화면이 형성된다. 저시점은 화면에서 산세의 수직성과 규모를 강조하고 관람자의 시선을 상향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만든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효과만으로 키스가 금강산에 대해 경외감이나 초월성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시점을 화면 구성의 형식적 특징으로 우선 파악하고, 금강산이 상징적 장소로 재현된 의미는 작품에 나타난 상징요소와 키스의 저술 및 제작 맥락이 함께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해석한다.

이외의 대부분 작품(24점)은 모두 눈높이 시점에서 그려졌다. 특히 눈높이 시점은 B그룹의 14점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풍경 자체가 주요 재현 대상인 A그룹에서도 15점 가운데 1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체 작품에서 눈높이 시점이 우세하게 나타난 결과를 인물 중심 작품의 포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눈높이 시점은 관찰자의 일반적인 시선 높이에 가까운 화면 구성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점만으로 대상과의 친밀성이나 비개입적 태도, 공감 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도는 크게 정면 구도와 사선 구도로 구분된다. 정면 구도는 대상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중심성과 안정성이 강조되는 화면을 구성한다. A05, 08, 11, 12, 14 및 B그룹의 다수 작품이 이러한 정면 구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면에서 주요 대상이 명확하게 부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면성만으로 장소나 인물에 대한 존엄성·경외감 또는 문화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A02, 06, 09, 10, 13, 15는 사선 구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화면 속에서 시선의 흐름과 동세를 유도하고, 입체적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건축물이나 길, 주변 인물 등이 사선 방향으로 배치되면서 전경과 후경이 연결되고 공간의 깊이가 강조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면·사선 구도는 우선적으로 화면에서 대상과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의 차이로 파악하고, 이를 특정한 심리적 태도나 문화적 인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저술 및 제작 맥락과의 교차검토가 필요하다.

4.1.1.3 색채와 분위기

본 항목에서는 회화 표현의 특징 중 색채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색채와 분위기는 작품에서 직접 확인되는 시각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작가의 저술과 제작 맥락이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색채 사용에 있어서는 흰색, 회색, 남색이 주조색으로, 하늘색과 초록색이 배경색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키스의 작품에서 흰색은 의복, 설경, 한옥의 지붕 등 다양한 요소에 사용되며, 특히 인물의 의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키스는 당시 한국인들이 상복과 유사한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며(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이는 그녀가 흰색 의복을 당시 한국인의 외관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흰색을 곧바로 한국의 청결함이나 간소함과 같은 정서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된 복식 및 경관요소와 작가의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색은 성벽, 기와지붕, 도로 등 도시 경관의 물리적 질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건축물과 도로 등의 재료와 표면을 표현하는 색채로 나타난다. 키스는 서울의 넓은 길이 황회색 화강암으로 덮여 있었다고 묘사하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이러한 기록은 작품에 나타나는 회색 계열이 당시 서울의 도로와 건축재료에 대한 작가의 시각적 관찰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식민 근대화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나 시각적 통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회화와 해당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남색은 일부 작품에서 해질녘이나 새벽녘의 하늘과 주변 경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의 작업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새벽과 저녁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점(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도 이와 맞물린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남색 계열은 우선적으로 작품에 표현된 시간대와 빛의 조건, 그리고 제작 당시의 관찰 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한국 풍경에 대한 신비로움이나 정서적 여운을 나타내는 색채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문헌 근거가 필요하다.

하늘색과 초록색은 자연 경관의 재현을 위한 배경색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A09에서는 하늘빛에 가까운 청색인 세룰리언(cerulean)이 나타난다. 이는 작품에 사용된 색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작가가 실제 경관을 관찰하며 사용한 언어적 표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낮은 톤과 차분한 색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작 매체뿐 아니라 새벽·저녁·안개·달빛 등 작품에 표현된 시간대와 대기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작품에서 이러한 시간적·대기적 조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화면의 색조와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곧바로 키스가 한국 경관에서 느낀 정서나 감정적 공명의 표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작품의 시각적 특징과 작가가 남긴 기록이 상호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1.2 제작 및 인식 맥락

제작 및 인식 맥락에서는 작품이 제작된 시대적·사회문화적 배경과 키스의 경험 및 저술을 함께 검토하여, 앞서 확인한 시각적 특징이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그녀가 남긴 기록에는 한국의 농촌과 생활상을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이 나타나는 한편, 한국에서의 체류와 교류가 이어지면서 식민지 현실과 일본의 통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함께 확인된다. 체류 기간 중 선교사 게일과의 교류와 취재 활동 등을 통해 을미사변, 러일전쟁, 3·1운동 등의 사건을 접하였으며, 그녀의 저서에서도 일본 통치자의 폭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확인된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따라서 키스의 한국 인식을 초기의 이국적 시선에서 이후의 공감적 시선으로 단선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기보다, 이국성에 대한 관심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작품의 제작연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작품경향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풍경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1919년부터 제작되는 동시에, 1919년의 B01과 1921년의 B02·B03 등 초기 작품에서도 인물과 생활장면이 이미 주요 소재로 나타난다. 또한 분석대상 중 제작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1922년을 전후로 기념비적 장소 중심에서 서민의 삶과 인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키스의 한국 관련 회화는 특정 시점에서 재현 대상이 일방적으로 변화하였다기보다, 초기부터 자연경관·도시공간·전통건축·인물 및 생활장면 등이 함께 선택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작작가의 저서에는 한국의 풍경, 사람들, 생활문화에 대한 다층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한국의 산세를 도자기와 유사한 둥근 형태로, 농촌의 초가집을 버섯이 모여 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묘사하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또한 서울을 접시 모양의 분지로 묘사하고, 해체 중인 성벽과 여전히 남아 있는 대문을 함께 기술하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이러한 서술은 당시 서울에서 전통적인 경관요소와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함께 관찰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개발사업으로 해당 풍경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기록하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키스의 저술은 색채 감각과 문화적 감수성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빨강·파랑·초록 등 한복의 원색과 배경의 파스텔 톤을 대비시키고 이를 인상적인 광경으로 평가한 서술은, 키스가 한국인의 복식과 주변 풍경에서 나타나는 색채 대비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미적 반응을 보였음을 보여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한국의 산을 세룰리언 계열의 색채로 묘사한 기록 역시 자연경관을 구체적인 색명으로 인식하고 표현한 사례이다. 이러한 기록은 4.1.1에서 확인한 작품의 색채 특성을 작가가 남긴 언어적 관찰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키스의 한국 관련 작품은 수채화, 목판화, 에칭 등 서로 다른 매체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목판화는 와타나베와 판각가·인쇄가가 참여하는 신판화의 분업적 제작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작품에서 나타나는 색채와 구도 등의 시각적 특성에는 작가의 관찰과 선택뿐 아니라 매체 및 제작방식의 조건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시점·구도·색채 등의 특징을 작가의 심리적 태도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제작 맥락과 함께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키스의 작품과 저술에는 한국의 자연경관과 도시공간, 전통건축,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함께 작가 자신의 미적 관심에 따른 선택이 나타난다. 동시에 그녀의 기록에서는 한국을 이국적이고 때로는 '원시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과 일본의 식민통치 및 경관 변화에 대한 비판적·우려의 인식이 함께 확인된다. 따라서 키스의 한국 재현을 공감이나 타자화 중 하나의 태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외부자로서의 문화적 위치와 실제 장소 경험, 미적 관심,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이 중첩된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제작 및 인식 맥락은 4.1.1에서 확인한 장소와 경관요소의 선택 및 시각적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4.1.3 수용 및 유통 맥락

수용 및 유통 맥락에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당대의 비평, 수집 및 시장 자료, 작품을 접한 관찰자의 반응을 통해 키스의 회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작가의 자기서술만으

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작품에 대한 당대의 외부 평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수용자를 크게 미술계 비평 및 제도, 시장 및 구매자, 관찰자 및 개인적 감식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작가의 표현에 대한 당대 비평가들의 평가는 키스의 작품이 당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1929년 11월 22일자 《재팬 타임즈(The Japan Times)》는 키스의 판화를 동아시아 현장을 직접 답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조수강, 2021b). 이는 당대 비평에서 키스 작품의 현장 경험과 묘사의 정확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호놀룰루 박물관이 그녀의 판화를 전량 수집한 배경에는 미학적 가치 외에, 동양의 관습을 정확히 묘사한 민속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다(전동호, 2020a). 이러한 수용은 키스의 작품이 동시대 서구 미술계에서 예술을 넘어 동아시아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시각자료로도 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작가의 회화에 대한 시장적 평가도 간접적으로 수용자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키스의 한국 작품에 대한 개별 판매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녀의 1938년작 목판화 〈홍콩의 꽃거리〉는 당시 미화 25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키스가 1944년 전시에서 작품 가격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했다고 밝힌 상황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46년에는 소형 동판화가 25달러, 대형 작품이 35달러에 책정되었다(전동호, 2020a). 다만 이러한 자료는 한국 관련 작품의 직접적인 판매 기록이 아니라 키스 작품 전반의 시장 유통과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한국 풍경 회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로 직접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한 일반 관찰자 및 전문가의 반응에서도 수용자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키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일본 건축인이 그녀의 판화가 한국의 지붕선과 일본·중국의 지붕선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포착했다고 평가한 일을 회고하였다(Keith and Robertson Scott, 2006). 이 사례는 적어도 해당 관찰자가 키스의 작품에서 한국 건축의 형태적 특징이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구별되어 표현되었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4.1.1에서 확인한 성문·성벽·기와지붕 등 건축요소의 반복적 표현이 당시 관람자의 인식에서도 주목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 확인되는 수용자료에서는 키스 작품의 묘사적 정확성, 현장 경험, 동아시아의 생활·관습에 대한 시각적 기록성, 그리고 지역별 형태적 차이의 표현 등이 주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키스의 작품이 당대에 단순한 미적 대상으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장소와 문화를 전달하는 시각자료로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수용자의 평가만으로 키스의 내면적 태도가 한국에 대한 존중이나 공감에 기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료를 작가의 태도를 직접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보다, 그녀가 구성한 이미지가 당대에 어떠한 특성으로 인식되고 유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보완적 자료로 활용한다.

4.2 중국·일본 작품과의 비교

키스의 한국 풍경 재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상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동시기에 제작된 중국과 일본의 작품을 각각 3점씩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중국 작품은 〈Lama Temple Peking〉(1922), 〈Night Scene, Peking〉(1922), 〈Bridge Soochow〉(1924)이며, 일본 작품은 〈Kamakura Daibutsu〉(1919), 〈Summer Reflections, Kamakura〉(1922), 〈Blue and White〉(1925)이다(그림 5 참조). 이들 작품은 한국 분석대상과 제작시기 및 매체가 유사하고 장소와 경관요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비교는 장소와 경관요소, 시점과 구도, 색채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작품 전체를 일반화하기보다 제한된 사례를 통해 한국 작품에서 나타나는 재현 특성의 상대적 위치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4.2.1 장소와 경관요소

중국 작품에서도 키스가 특정 장소의 건축물과 일상적 생활장면을 주요 소재로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Lama Temple Peking〉에서는 사원의 문과 지붕, 기둥 등의 건축요소가 화면의 중심을 이루며 인물이 함께 배치되고, 〈Night Scene, Peking〉에서는 상점과 간판, 노점, 인물 등이 결합된 야간의 도시생활이 표현된다. 〈Bridge Soochow〉에서는 석교와 수로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과 배, 인물이 함께 구성된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일상생활을 소재로 선택하는 방식 자체는 한국 작품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 작품에서도 장소의 상징성과 일상적 생활은 모두 나타난다. 〈Kamakura Daibutsu〉에서는 대불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여 장소를 대표하는 상징적 대상이 강조되며, 〈Summer Reflections, Kamakura〉에서는 해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장면이 주요하

A. 중국		
		
a: C01. Lama Temple Peking(1922)[1]	b: C02. Night Scene, Peking(1922)[1]	c: C03. Bridge Soochow(1924)[1]
B. 일본		
		
a: J01. Kamakura Daibutsu(1919)[2]	b: J02. Summer Reflections, Kamakura(1922)[3]	c: J03. Blue and White(1925)[1]

그림 5. 비교분석을 위해 선정한 중국 · 일본 작품
출처: [1]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2]Christie's; [3]Elizabeth Keith Archive

게 표현된다. 또한 〈Blue and White〉에서는 일본의 상점과 인물, 청화도자기, 의복 등 문화적 요소가 하나의 장면 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Blue and White〉에는 일본의 청색 문화와 공예품뿐 아니라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가 화면 안에 직접 포함되어 있어, 기존 일본 시각문화의 상징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앞서 분석한 한국 작품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문화적 상징물뿐 아니라 산지와 성문 · 성벽 · 기와지붕 등의 전통 건축요소,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과 생활 활동이 하나의 장소 장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복적 결합은 한국 작품 29점의 분석에서 확인한 결과이며, 선정한 중국 · 일본 작품과의 대조만으로 한국 작품에서 더 빈번하거나 두드러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2.2 시점과 구도

선정한 대조작에서도 눈높이에 가까운 시점이 확인된다. 중국의 〈Lama Temple Peking〉, 〈Night Scene, Peking〉, 〈Bridge Soochow〉는 모두 관찰자가 장소 내부 또는 주변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과 인물을 화면 안에서 함께 보여준다. 일본의 〈Summer Reflections, Kamakura〉와 〈Blue and White〉에서도 일상적인 관찰 높이에 가까운 구성이 나타나는 반면, 〈Kamakura Daibutsu〉에서는 대불을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하여 상징적 대상의 규모와 중심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 작품에서 눈높이 시점이 다수 나타난다는 사실을 곧바로 한국의 일상에 대한 친밀성이나 공감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눈높이에 가까운 관찰 방식은 선정한 중국 · 일본 작품에서도 확인되므로, 이를 한국 재현에만 고유한 시각적 구성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작품의 특징을 해석할 때는 눈높이 시점 자체보다는 그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장소와 경관요소를 선택하고 결합하였는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4.2.3 색채와 분위기

선정한 대조작에서는 청색 계열이 야간 풍경과 수변 경관, 상점 장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중국의 〈Night Scene, Peking〉에서는 짙은 청색 계열의 야간 배경과 상점 및 등불의 밝은 색채가 대비되고, 〈Bridge Soochow〉에서는 청색 · 회색 계열을 중심으로 수로와 흐린 대기조건이 표현된다. 일본의 〈Kamakura Daibutsu〉 역시 짙은 청색을 중심으로 야간의 분위기를 구성하며, 〈Blue and White〉에서는 작품 제목에서 드러나듯 청색과 흰색이 화면 전체의 지배적인 색채로 사용된다. 따라서 청색 계열의 사용 자체를 한국 작품과 중국 · 일본 작품을 구별하는 근거

로 삼기는 어렵다. 청색 계열은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 작품에서도 새벽 · 저녁 · 달빛 등의 장면에서 활용되며, 작품의 색채는 국가에 대한 작가의 정서적 태도로 직접 환원하지 않고, 시간대, 대기조건, 대상의 색채 및 목판화의 제작방식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4 사례 대조의 결과와 해석의 범위

이상의 사례 대조 결과를 종합하면(표 4 참조), 일상생활의 표현, 눈높이에 가까운 관찰 시점, 상징적인 장소의 선택, 청색을 비롯한 분위기 있는 색채 사용 등은 한국 작품뿐 아니라 선정한 중국과 일본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한국에 대한 키스의 특별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표현으로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키스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을 재현하면서 공유한 회화적 관심과 표현방식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앞선 한국 작품 29점의 분석에서는 서울 · 원산 · 평양 · 수원 · 금강산 등 실제 체류와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장소를 중심으로, 산지와 성문 · 성벽 · 기와지붕 등의 전통 건축요소, 그리고 인물과 생활 활동이 하나의 풍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자연지형을 배경으로 전통 건축물과 일상적 인간 활동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은 키스가 한국의 장소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선택한 요소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결합은 한국 작품군 내에서 확인한 특징이며, 중국 ·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는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이 절의 사례 대조는 한국 작품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점검하는 보완적 근거로 활용하며, 국가별 재현 특성의 차이를 입증하는 분석과는 구분한다.

4.3 한국 풍경 재현의 특징과 경관적 의미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키스의 한국 관련 회화는 당시의 경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결과라기보다 실제 체류와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장소 가운데 특정한 장소와 경관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회화적 방식으로 구성한 시각적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5 참조). 서울의 동대문과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 한편, 금강산에서는 실제 지형에 신화적 · 상징적 요소가 결합되고, 일부 인물화에서는 서로 다른 경관요소가 하나의 배경으로 조합되는 등 작품에 따라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키스의 회화가 실제 장소의 물리적 모습을 그대로 옮긴 기록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경험과 선택이 개입된 풍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작품에서는 산지와 성문 · 성벽 · 기와지붕 등의 전통 건축요소,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과 생활 활동이 반복적으로 하나의 화면 안에 결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중국 · 일본 작품과의 보조적 사례 대조에서는 일상생활의 표현, 눈높이 시점, 상징적 장소의 선택, 청색 계열을 포함한 분위기 있는 색채 사용 등이 선정한 대조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 자체를 한국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 작품에서 확인한 자연지형 · 전통건축 · 일상적 인간 활동의 반복적 결합은 한국 작품군 내에서 나타난 장소 구성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재현은 키스의 외부자로서의 위치와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저술에는 한국의 자연과 생활문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미적 관심이 나타나는 동시에, 한국 농촌을 '원시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당시 서구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연결되는 시선도 확인된다. 또한 일본의 식민통치와 경관 변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 역시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키스의 한국 인식을 단순히 애정이나 공감, 혹은 타자화 가운데 하나로 환원하기보다는, 외부자의 문화

표 4. 키스의 한국 작품과 중국 · 일본 선정 작품의 보조적 사례 대조

구분	한국(n = 29)	중국(선정 작품, n = 3)	일본(선정 작품, n = 3)	한국 작품 해석의 시사점[2)]
장소 및 경관요소	산지, 성문 · 성벽 · 기와지붕, 인물 · 생활활동의 반복적 결합	사원, 상점, 교량 · 수로, 인물 및 생활장면	대불, 해변, 상점, 공예품, 인물 등	건축물과 일상생활의 표현 자체를 한국 작품에만 고유한 특징으로 보기는 어려움
시점	눈높이 시점이 우세, 일부 고 · 저시점	눈높이에 가까운 관찰 시점 다수	눈높이 시점 및 상징적 대상 중심 구성	눈높이 시점 자체는 한국 작품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움
구도	정면 · 사선 구도 병존	건축과 생활요소를 함께 구성	상징대상 중심 또는 일상적 장면 구성	구도의 차이를 국가별 특성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개별 작품의 요소 배치와 관련하여 해석함
색채 및 분위기	흰색 · 회색 · 남색, 새벽 · 저녁 · 안개 · 달빛 등의 분위기	청색 · 회색 및 야간의 색채 대비	청색 · 흰색, 야간 또는 문화적 색채 강조	청색 계열과 야간의 분위기는 대조작에서도 확인되므로 한국 작품에만 고유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움
종합	실제 체류와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장소를 자연 · 건축 · 생활요소의 결합을 통해 재구성	건축 · 거리 · 일상생활 · 상징적 소재 등을 통해 장소를 재현함	문화 · 종교적 상징 장소와 일상적 장면 등을 재현함	한국 작품에서 확인한 경관요소의 반복적 결합과 국가 간 차이를 구별하고, 대조작은 한국 작품 해석의 범위를 점검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함

표 5. 키스 회화에 나타난 한국 풍경 재현의 특징과 경관적 의미

분석 영역	세부 항목	분석 결과 요약	주요 작품 및 근거
회화의 시각적 구성	장소와 경관요소	• 서울, 원산, 평양, 수원, 금강산 등 철도망 중심의 장소 선택 • 동대문의 반복적 재현과 금강산의 신화적 · 상징적 요소 결합 • 산지와 성문 · 성벽 · 기와지붕 등 전통 건축요소의 반복적 출현	A01–15/B01–14 동대문: A02, 05, 06, 08 금강산: A03, 04
	시점과 구도	• 고시점 · 저시점 · 눈높이 시점의 구분 • 전체 29점 중 눈높이 시점이 24점으로 우세하며, A그룹에서도 15점 중 10점으로 확인 • 정면 · 사선 구도는 대상의 배치와 화면의 흐름을 구성하는 시각적 방식으로 파악	고시점: A01, 06, 07 저시점: A03, 04 눈높이: 그 외 24작품 사선: A02, 06, 09, 10, 13, 15
	색채와 분위기	• 흰색 · 회색 · 남색 등 반복적으로 사용된 색채와 재료 · 시간대 · 빛의 관계 확인 • 색채와 분위기를 작가의 감정이나 문화적 태도와 직접 동일시하지 않고 매체 · 시간 · 환경적 조건과 함께 해석	그룹A 및 그룹B 전체 작품, Keith의 저술
제작 및 인식 맥락	인식과 장소 경험	• 한국의 자연과 생활문화에 대한 구체적 관찰과 미적 관심 • '원시적'이라는 외부자의 문화적 시선과 일본 식민통치 및 경관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 단선적인 '외부자 → 공감'의 변화보다 복합적인 외부자의 위치로 해석	Keith의 저술, 조수강(2021b), 전동호(2020b)
	제작 맥락	• 수채화 · 목판화 · 에칭 등 매체의 차이와 신판화의 협업 제작방식 고려 •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작가 개인의 심리만으로 환원하지 않고 매체와 제작조건 함께 검토	Keith의 작품 및 관련 제작자료
수용 및 유통 맥락	동시대 평가	• 《Japan Times》 등의 비평에서 묘사의 정확성과 현장 경험이 주요 평가요소로 제시 • 작품이 미학적 대상뿐 아니라 동아시아 생활과 관습을 보여주는 시각자료로도 수용됨	조수강(2021b), 전동호(2020a)
	유통 및 감식	• 전시 · 판매 · 수집 등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유통 • 한국의 지붕선 등 장소적 차이를 포착한 점이 동시대 감식자에게 주목됨 • 이러한 수용을 작가의 '공감'이나 '존중'의 직접적 증거로 확대하지 않음	Keith and Robertson Scott(1946), 전동호(2020a)
종합	한국 풍경 재현의 특징과 의미	• Keith의 한국 회화는 객관적 경관 기록이라기보다 특정 장소와 요소를 선택 · 구성한 시각적 풍경으로 이해 • 자연지형 · 전통건축 · 일상적 인간 활동이 하나의 장소 장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합 • 근대기 경관의 인식 · 경험 · 재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 의미를 가짐	한국 관련 작품 29점 및 관련 텍스트

적 위치와 실제 장소 경험, 미적 관심, 당시의 정치 · 사회적 조건이 중첩된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분석은 키스의 회화를 당시 경관의 물리적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뿐 아니라, 외부자가 자연 · 건축 · 생활 요소를 선택하고 구성하여 장소를 인식하고 재현한 방식을 살펴보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엘리자베스 키스의 1920년대 전후 한국 풍경 관련 회화에 대한 본 연구의 종합적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키스가 한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회화 가운데 장소와 경관요소가 확인되는 29점을 대상으로, 회화의 시각적 구성과 제작 및 인식 맥락, 수용 및 유통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기에 제작된 중국과 일본 작품을 보조적 대조자료로 활용하여 한국 작품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점검하였다.

첫째, 키스의 한국 관련 회화에서는 서울, 원산, 평양, 수원, 금강산 등 실제 체류와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장소가 주요하게 선택되었으며, 동대문과 같이 반복적으로 재현된 장소도 확인되었다. 작품의 경관요소에서는 산지와 성문 · 성벽 · 기와지붕 등의 전통 건축요소, 그리고 인물과 생활 활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작품에서는 실제 장소에 신화적 · 상징적 요소가 결합되거나 서로 다른 경관요소가 하나의 배경으로 조합되는 방식도 확인되었다. 이는 키스의 회화가 당시 경관을 그대로 옮긴 기록이라기보다 실제 장소 경험과 작가의 선택을 통해 구성된 시각적 풍경임을 보여준다. 둘째, 시점에서는 전체 29점 가운데 눈높이 시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물화가 포함된 B그룹뿐 아니라 풍경을 주요 대상으로 한 A그룹에서도 눈높이 시점이 우세하였다. 시점 · 구도 · 색채는 작가의 심리적 태도와 직접 연결하기보다 작품의 대상, 관찰 위치와 화면 구성, 시간대와 대기조건, 매체 및 제작방식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키스가 남긴 저술과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한국의 자연과 생활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미적 관심이 확인되는 동시에, 한국 농촌을 '원시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당시 서구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연결되는 외부자의 시선도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와 경관 변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 역시 확인된다. 따라서 키스의 한국 인식은 외부자로서의 문화적 위치, 실제 장소 경험, 미적 관심, 당시의 정치 · 사회적 조건이 중

첩된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용 및 유통 자료에서는 키스의 작품이 당대에 묘사의 정확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학적 가치와 함께 동아시아의 생활과 관습을 보여주는 시각자료로 수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작가의 내면적 존중이나 공감을 직접 증명하는 근거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국·일본 작품과의 보조적 사례 대조에서는 일상생활의 표현, 눈높이에 가까운 시점, 상징적 장소의 선택, 청색을 포함한 분위기 있는 색채 사용 등이 한국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공감의 증거로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한국 작품 29점의 분석에서는 자연지형과 전통 건축, 일상적 인간 활동이 하나의 장소 장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경관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기보다 키스가 한국을 경험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선택한 경관 요소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경사적 의의는 키스의 회화를 통해 근대 한국 경관에 대한 한 외부자의 인식과 재현 방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회화에는 당시 장소를 구성하던 자연·건축·생활 요소가 시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외부자인 작가가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풍경으로 구성하였는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근대기 회화는 과거의 공간 형태를 확인하는 보조자료를 넘어, 특정 시대와 주체가 경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재현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조경사적 시각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다른 근대기 외국인 화가들의 한국 이미지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확인 가능한 한국 관련 회화 29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작품의 제작연도가 확인되지 않아 재현 방식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중국·일본 비교 역시 동일 작가의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사례 비교이므로, 이를 국가별 재현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키스 한 사람의 회화는 20세기 초 한국 경관에 대한 다양한 인식 가운데 하나의 외부자적 시선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당시 한국 사회 전체의 경관 인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키스와 동시기에 한국을 재현한 다른 외국인 화가들의 작품을 비교하고, 회화뿐 아니라 사진·지도·기행문 등 서로 다른 시각·문자자료를 교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장소가 서로 다른 주체와 매체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재현되었는지를 비교한다면, 근대기 한국 경관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경관을 바라보고 경험한 다양한 방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Rose의 네 분석 지점을 본 연구의 세 분석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유통과 수용은 하나의 영역에서 다루되 검토 내용을 구분하였으며, 이미지 자체의 세부 분석항목은 구성적 해석의 논의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주 2. 한국 열은 분석대상 29점의 결과를, 중국·일본 열은 선정한 각 3점의 관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가별 작품군의 규모, 구성, 제작 조건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표를 통해 국가 간 출현 빈도나 특정 표현의 두드러짐을 판단하지 않는다.

References

1. 경남도립미술관(2007) (푸른 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 키스 전: Korea through Western Eyes: Elizabeth Keith in 1920s. 경남도립미술관.
2. 구모룡(2018) 접촉지대 부산을 향한 제국의 시선: 와국인의 여행기에 재현된 19세기 말의 부산.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295-330.
3. 김정화, 조경진(2016) 식물원에 대한 개항기 한국 지식인의 인식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44(2): 96-107.
4. 박암종(2008) 엘리자베스 키츠의 한국 관련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그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1(5): 215-226.
5. 배리듬, 김은정(2021) 서양화가에 의해 표현된 한국의 근대 복식문화: 엘리자베스 키스와 폴 자쿨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4(2): 107-124.
6. 심영옥(2013) 엘리자베스 키스의 시각으로 본 한국인의 모습과 풍속의 특징 분석. 동양예술 21: 45-72.
7. 유가현, 성종상(2009) 진경산수화에 표현된 풍토경관에 관한 기초연구: 겸재 정선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7(1): 87-99.
8. 이경근(2022) "그림 같은 풍경"의 재해석: 병산서원 차경 설계의 수양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50(6): 15-29.
9. 이지나, 정희선(2017) P. 로웰의 여행기에 나타난 개화기 조선에 대한 시선과 표상: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9(1): 21-41.
10. 이지나, 정희선(2018) I. B. Bishop의 19세기 말 조선 여행기 속 재현양상 분석연구: 주제어와 형용사 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17.
11. 전동호(2020a) 동아시아 판매하기: 엘리자베스 키스와 조선. 미술사와 시각문화 25: 6-33.
12. 전동호(2020b) 변방의 미술: 엘리자베스 키스의 동양 그리기. 미술사학 40: 193-217.
13. 조수강(2021a) 근대 일본 미술의 조선표상: 엘리자베스 키스의 신판화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52-255.
14. 조수강(2021b) 일본 신판화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에 착종된 제국의 시선: 일본 발행 신문 기사(1916-1956)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89: 281-303.
15. Claypool, L.(2014) Feminine Orientalism or modern enchantment? Peiping and the graphic artists Bertha Lum and Elizabeth Keith, 1920s-1930s. Nan Nü: Men, Women and Gender in China 16(1): 91-127.
16. Keith, E.(2012)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 영국 화가가 그린 아시아 1920-1940. 송영달 역. 책과함께.
17. Keith, E. and E. K. Robertson Scott(2006)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송영달 역. 책과함께.
18. Kumojima, T.(2018) "The democracy of art": Elizabeth Keith and the aesthetic of the Eastern ordinary. In S. P. Gabriel and N. O. Pagan, eds., Literature, Memory, Hegemony: East/West Crossings. Palgrave Macmillan: 57-75.
19. Rose, G.(2022)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Researching with Visual Materials (5th ed.). SAGE Publications.
20. https://asia-archive.si.edu/object/S2003.8.1053/
21. https://asia-archive.si.edu/object/S2003.8.1056/
22. https://asia-archive.si.edu/object/S2003.8.1059/
23. https://asia-archive.si.edu/object/S2003.8.1060/
24. https://elizabethkeith.art/product/kamakura-summer-reflections/
25. https://onlineonly.christies.com/s/new-wave-icons-modern-japanese-prints-online/elizabeth-keith-1887-1956-101/230981